

전북 사회적기업 8년새 7배 증가

99개로 전국 4위 · 6.3%... 일자리제공형 74% · 농식품기업 27개 · 가사·간병 고용 58.5명

도내 사회적 기업이 지난 8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형직)이 2일 발간한 '전북 인포그래픽스'에 게재된 전북 사회적기업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은 99개로(전국 4위·전국비중 6.3%) 8년 동안 무려 7배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자리제공형'이 74%로 가장 많이 차

지했으며 산업유형별로는 '농식품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고용창출이 가장 큰 분야는 '가사·간병'이며 업체당 매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유통'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8년(2008년~2016년) 사이 전북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은 14개에서 99개로 7배 성장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6.3%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장은 전국에서 서울·경기·경북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고 산업유형별로는 농식품(27개)·환경(19개)·문화, 관광, 예술, 체험(16개)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업체당 인력고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가사·간병(58.5명)이며 다음으로 환경(42.9명)·교육(3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제조업·유통(18억8,500만원)이며 다음으로 농식품(12억7,200만원), 가사·간병(11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북 인포그래픽스는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경제 및 사회 관심 통계를 분석해 격월로 발간,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와 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영란법 분이기관별 대응방안 간담회 2일 도청 14층 소회의실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강승구 농축수산물식품국장, 김영일 전북농협지역본부단장, 유경중 한국고려총합소협대표, 정화영 (주)로즈피아대표, 강완식 군산수협팀장 및 분이기관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수습·지원 업무편람 발간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수습과 지원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은 사회재난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관련법령·규정 해설, 복구절차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지원 요령, 26개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지원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비와 장례비 지급보증 등 신속한 인명피해 수습에 필요한 중요항목과 절차를 제시한다.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는 가족돌봄, 의료·장례, 생활요금감면, 세제·금융지원 등 6개 분야 30개 지원항목과 각 항목별 지원근거, 지원대상·내용, 지원절차와 신청방법 등을 수록했다. /뉴스

'김영란법' 정부실무협의회, 이견만 확인

농식품부 등 "물가상승률 고려", 중기청 "내수침체 고려"... 권익위 "장기적으로 효과"

법제처가 1일 오전 9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됐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이가 의장을 맡는다.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는 다르게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실무 단계로, 쟁점을 정리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에 대한 사외로 이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차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이날 개최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주재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권익위 등 5개 기관의 국·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태권도원 유니폼' 국민 선호도 조사

7일까지 태권도원 도약센터 1층 로비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태권도와 한스타일이 융합된 '태권도원 유니폼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재단은 세계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원만의 전통성을 부여한 복장 및 국기 태권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유니폼으로 통일감 및 일체감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번 디자인 개발은 아름다운 한복의 특징을 살림과 동시에 태권도의 정체성과 근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소재로 기능성 또한 강조한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디자인은 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결정된 최종 디자인은 재단 근무자들이 착용하게 된다.

재단은 '태권도원은 국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한스타일 태권도원 유니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것 또한 하나의 한류 패션 브랜드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선호도 조사는 2일부터 7일까지 태권도원 도약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인권유린국가들, 국민 감시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

반체제주의자들을 탄압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많은 정부들이 대화를 도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값싼 감시 소프트웨어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AP 통신의 탐사보도에서 규제 규정 미비로 일상적으로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감시 소프트웨어들을 어렵게 없이 입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루의 경우 전투기 한 대 가격에도 못미치는 값에 감시장비 일체를 구매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도 없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회사 베린트 시스템스가 이러한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밀 서류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장비들은 규모만 작을 뿐 미국이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 수백만 명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도청한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AP 통신이 페루에서 입수한 훈련 매뉴얼과 계약서, 송장 및 이메일 등에 따르면 감시 소프트웨어 거래의 배후에는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극비 산업이 도사리고 있다. /뉴스

일본 경제백서, 20~30대 "절약 지향적"

노후 불안으로 저축액 늘려

일본 국민 중 20~30대가 전 세대 중 가장 절약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 니혼게이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내각부는 2일 2016년 경제재정백서에서 개인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20~30대 젊은이들의 절약적 소비 행태를 꼽았다.

경제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지난 1년간 경기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최근 엔화 강세 여파 등으로 디스플레이 판권을 위한 개선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제백서에서는 최근 경제가 계속되는 개인소비 실태와 관련해 세대별 분석을 실시했는데, 20~30대의 지난해 가처분소득 중 소비 비중은 66.5%로, 다른 세대보다 5~30% 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은 저축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세대보다 비정규 고용 비율이 높고 육아나 교육을 위한 지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액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무직 세대인 60~64세의 소비 활동도 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백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시정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없애, 미래의 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고 근로 방식을 개혁해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뉴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